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추태화

연재 순서

- 1회: I.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II.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 2회: III.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IV.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 3회: V. 통일로 속죄하다,
VI.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선교 120주년을 넘어서는 성숙한 나이의 한국 교회,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분단과 통일이라는 면에서 자주 비교되어왔던 독일. 그들의 역사에서 교회는 어떠했는지 독일사에서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사진설명: 독일 나치제국 최고지도자 히틀러는 제국기독교 총회장에 밀려 목사를 임명하고, 그를 통해 독일 교계를 회유 및 탄압하였다.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외로운 외침이요 반항없는 메아리로 끝나버렸다. 기독교를 향한 독설은 역설적이게도 니체의 애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망나니처럼 언어를 마구 내뱉던 철학자의 마음에 어찌면 자신의 교회를 향한 처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는지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독일 교회가 크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개혁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거대한 공룡같은 체제가 되어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 교회는 루터의 신앙 고백을 따르면서 민족주의 성향을 짙게 띠었다. 독일인이면 루터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적 전통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중에서 칼빈의 개혁주의는 독일 땅에서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민족주의에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패전하게 된 독일은 전쟁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막대한 전쟁 보상금으로 경제가 휘청거렸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였으며, 민족적 열등감마저 팽배해져갔다. 게다가 입헌 민주주의의 기치와 열정으로 태동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실패로 끝나갔다. 독일인들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다고 느꼈다. 정당이던지 정치인이던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프로테스탄트(Nationalprotestant)라는 옷을 입게 되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신앙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히틀러 정권이 요구하는 정치화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이런 논법으로 독일 개신교를 추궁했다. '국가가 소련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해주는데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국가에 보답할 것인가?' 그 결과 독일에서 루터교 전통이 가장 뿌리깊게 내린 튀링겐 주를 중심으로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치당을 공공연하게 옹호하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이를 놓치지 않고 독일 기독교 총회장에 I. 뮐러 목사를 임명하였다. 당시 여러 신학자들이 '실용적 기독교(positive christianity)'를 주장했는데, 뮐러 역시 그런 논리를 떠나갔다. 실용적 기독교는 국가의 정치체제에 순응하여 국가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그는 '새로운 독일 교회'를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기독교에서 긍정적인 기독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국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뮐러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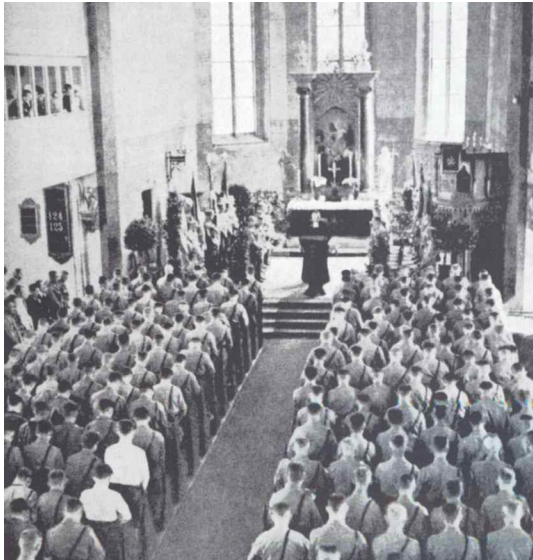
니뮐러(M. Niemoeller), 본회퍼(D. Bonhoeffer) 등 의식 있는 교계지도자들은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제국기독교'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이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돌격대(SA), 친위대(SS), 경찰, 군인, 법조계 조직을 사조직처럼 움직이며 저항세력을 탄압해 나갔다.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제국기독교인들에 의해 밀고(密告)당하고, 경찰 조사와 지명 수배, 강제수용소에 갇히는 등 근현대사에서 실로 찾아보기 어려운 탄압이 가시화되었다. 기독교인들이 또다른 기독교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한 것이다.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만약 독일 교인들이 전적으로 깨어있었더라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나치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초기부터 저항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제대로 시대를 밝혔더라면 나치 지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 고백교회는 정치적 세력으로 결성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교회와 교인들의 오판은 결국 독일 교회로 하여금 히틀러와 나치주의자들에게 주권을 내준 셈이 되고 말았다.

교회를 회유, 탄압하는데 성공한 히틀러는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준비하였고, 곧 이어 수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유대인

만약 독일 교인들이 전적으로 깨어있었다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나치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초기부터 저항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제대로 시대를 밝혔더라면 나치 지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치친위대원들. 제복을 입은 채 예배당에 입장한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 하지만 기독교 유희정책을 위장하고 있으며, 실은 나치 권력을 과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당시 나치 제복으로 예배당 출입하는 행동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학살은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 작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의 가톨릭, 개신교 모두 이 만행에 대해 처음에는 침묵했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연합군 중에서 특히 소련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하여 철저한 복수를 꾀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스탈린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했고, 전쟁 중 수많은 소련 군인과 민간인

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민주주의 동맹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소련연방공화국은 나치 독일에 대하여 연합전선을 폈다. 민주 진영 연합군은 독일 서부를, 소련군은 독일 동부를 탈환해 들어갔다. 그 결과 독일 영토는 동, 서독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고, 1948년 서독 민주주의 정부, 동독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므로 두 나라로 분단이 확연해졌다. 1961년 독일 개신교 교단인 루터교가 ‘공산주의 속 기독교’, ‘사회주의 안의 기독교’라는 주장 하에 동, 서독으로 분리되었다. 이후로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에 시달리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교육과 직업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고,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강요당하였다.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이들도 나날이 늘어났다. 분단 초기 동독 교인은 1500만 명에 달했는데, 통일 직전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만약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었다면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되도록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었다면 나치가 그토록 잔인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었다면 독일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오판과 오명을 뒤집어 쓰도록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은 자(the remnant)’를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틀러같은 독재자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던가. 그 역사의 비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추태화 독어독문학 박사이며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학과장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분과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태초에 문화가 있었느니라』,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등이 있다.